

우리나라 單科大學의 문제점과 改善方案

李 洙 德
(서울女大 敎育心理學科)

單科大學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규모에 따라 大學과 大學校로 구분하여 差別待遇하는 그릇된 풍조가 없어야 한다. 大學의 眞正한 價値는 그 대학의 敎育 이념과 목적 의식의 명료성, 그 대학의 특성과 그것에 적합한 敎育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여하에 따라 公正하게 評價되어야 한다.

1.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의 動態에서 볼 수 있는 奇異한 현상인 동시에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單科大學(College)보다 綜合大學(University)을 選好하는 경향이다.

해방되던 194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綜合大學 체제의 대학은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단과대학 체제의 고등교육 기관이었던 것이 45년이 경과한 오늘에는 고등교육 기관 중에 4년제 대학만도 단과대학 체제가 60개, 綜合大學 체제는 61개로 소규모의 단과대학들보다도 대규모의 綜合大學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다른 나라의 大學 設置 樣式과 비교해 볼 때, 대학 설치의 구조상 어딘가 균형이 안 잡히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기회의 크기가 확대되고 量的으로 크게 성장하여 발달한 징표로

이처럼 綜合大學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 긍지를 갖게도 되지만, 한편으로 대학교육의 大勢가 質的 敎育보다 量的인 敎育으로 기울고 있는 것같은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大學의 設置 樣相을 염려하여 비판하는 見解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대학의 이념과 본질에 입각해서 판단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와 같은 4년제 대학이면서도 대학 규모의 크기와 編制 樣式에 따라서 ‘大學’과 ‘大學校’로 엄격히 구별해서 불리고 있고—더욱 불합리하고 심하게 여겨지는 것은—大學校(University)는 大學(College)보다 上位級 대학으로서 한층 格이 높은 大學으로 간주되는 듯한 그릇된 大學像의 概念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반 사회나 학생, 대학교육계 인사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에서 ‘大學校’로 大學體制가 轉

換되는 것을 昇格이라고 표현하면서 축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單科大學이 종합대학으로 體制를 바꾸는 것은 대학이란 하나의 組織體가 肥大해진 것을 뜻한다. 大學을 하나의 人間有機體에 비유하여 볼 때 몸을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비대해지는 것은 건강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高血壓 등의 成人病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건강상 경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비대해진 사람에게 풍채가 좋아졌다고 칭찬이나 축하를 보내는 것처럼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體制 轉換하는 대학에 대해서 昇格했다고 축하를 보내는 것은 비대해진 사람에게 축하하는 것과 흡사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겠다.

대학의 체제가 비대해짐을 승격이나 축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에 부담만 가중되는 양상으로서 同情과 念慮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의 현상처럼 많은 單科大學들이 무조건 종합대학을 선호하고 지향하게끔 형성된 데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와 수 많은 원인 또는 背景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의 이 그릇된 경향과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까지 單科大學들이 형성된 과정과 배경을 고찰·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한 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우리나라 單科大學의 變化過程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해방 후 45년간에 걸쳐 量과 質에 있어서 크게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특히 大學教育의 機會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의 機能도 사회 발전과 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그것에 相應하게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概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겠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대한 개념이나 大學像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單科大學들의 변화 과정과 발달 과정을 대략적이거나 고찰·검토하는 것이 오늘의 大學觀이나 大學像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되던 1945년에 우리나라에는 高等教育 기관으로서 4년제 대학은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京城帝國大學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10여 개의 고등교육 기관은 모두 專門學校로서 短期 고등교육 기관이었다. 그때 한국의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모두 합쳐야 8천 명도 되지 않았다. 해방이 되면서 그동안 日帝에 의해서 억제되었던 대학 설립의 욕구와 대학 진학의 열망이 迸發해서 폭발하듯이 분출되었다. 專門學校들은 모두 4년제 대학으로 昇格 認可되었다. 그동안 日帝에 의해서 부당하게 격하되고 억제되었던 大學 學部 설치의 꿈이 실현됨으로써 그야말로 교육 수준상 下級 高等教育 기관인 專門學校에서 한 단계 높은 大學 學部課程인 4년제 大學으로 격상된 것이 확실하므로 '昇格'이란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느껴졌다. 해방 직후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와 열의는 대단한 것이어서 그 당시 대학 설립 독지가들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신설 대학의 인가가 용이하므로 대학 설립의 증가와 대학생 인구의 증가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대학의 門戶가 흡사 開放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학의 난립과 대학의 質 저하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되자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을 정비하고 대학 진학 자격자를 제한하며 대학생 인구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그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학 진학을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45년간 변함없이 대학 진학의 熱度가 내려가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그 결과 오늘에 와서는 4년제 대학(교)이 모두 121개교이고, 短期 고등교육 기관인 전문대학이 119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는 현재 126만여 명으로 괄목할 만큼 증원되었다. 半世紀도 못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학 인구가 격증한 현상은 人口比率로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줄 안다. 이와 같은 대학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면

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高麗 및 李朝 封建社會體制와 倭政治下의 긴 역사 동안에 제도에 묶여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국민 대다수의 억압된 감정과 욕구가 해방과 더불어 교육과 출세를 동일시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강렬한 욕구로 폭발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大學 進學이 立身出世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대학 입학 정원의 제한이 없었을 때에는 대학들이 亂立했고 시설상 수용 능력이 불충분하고 가르칠 教授가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도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 같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대학의 간판만 보고 진학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농촌에서는 子女의 출세를 위해서 논밭을 팔아 생활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대학에 보내는 실정이었다. 한때 이와 같은 盲目的인 교육열의 부작용은 사회의 수용 태세의 미비로 인해서 대학 출신의 고등 실업자를 累積시키는 경제적 악순환과 사회 병리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원인으로 치부되던 때도 있었다. 문교부는 그 대책으로 1960년 초반부터 대학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여 고급 인력의 需要와 供給의 균형을 계획·시도하게 되었다. 교육 이념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더 앞세우는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이러한 施策을 이용하여 학과 증설과 학생 증원을 통한 대학 규모의 확대와 단과대학 체제의 종합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1960년 5·16 이후 군사 정권은 문교 정책으로 부실한 대학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각 대학의 학과 증설과 학생 증원이 억제되었고, 종래에 대학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대학 운영의 자유와 자율권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통제 받게 되었다. 따라서 大學의 난립화나 大學을 企業的으로 운영하려는 일부 私立大學의 학과 신설이나 학생 증원이 통제되었고, 학생들의 맹목적인 대학 진학열은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열기가 수그러들고 대학생 인구도 대폭적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評價한다면 해방되던 '45년 이후부

터 1960년까지 한국의 대학교육은 量的인 擴張에만 급급했고 교육의 質的인 向上에는 별로 노력을 傾注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1960년 5·16 이후부터 한국의 대학교육은 本軌道를 찾는 듯이 교육의 내용과 질적 향상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에서 1960년대는 한국 대학이 量 위주의 교육에서 質的인 教育으로 향했던 轉換期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교부는 대학교육의 개선책으로 實驗大學을 권장하며 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한 각 대학의 자체 연구와 교육의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했다. 그와 같이 실험대학 운영을 독려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학교육은 점차로 정상화 해 가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고도 산업화를 통해서 큰 변화와 성장·발전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과 발전 배경에는 대학교육의 역할과 그 성과에 힘입은 바가 컸음을 부인할 수 없는 줄 안다. 그 결과 각 대학마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반성·검토하면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생각되나, 시설과 교수 확보의 부진, 제도의 미비와 대학 운영상의 비능률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내실과 質的 向上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없었다고 하겠다. 대략적으로 '60년대와 '70년대의 대학교육은 量的인 교육에서 質的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통제가 지나쳐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란 측면에서는 다소간 위축되고 부진했던 것 같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 7월 30일에 政府가 公布한 '教育正常化方案'에 따라 구체화된 '大學教育改革案'에 의하여 또 다시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가 대폭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안에 따라 '81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入學定員制에서 卒業定員制로 전환하면서 4년제 대학은 졸업 정원의 130%, 전문대학은 졸업 정원의 115%로서 총 306,880 명이 대학 입학 총 인원으로서 책정되어 '80년도의 대입 정원인 205,835 명보다도 101,045 명이 늘어났다. 결국 입학 정원이 49% 정도 증원되어 그동안 억제되었던 大學教育의 機會가 破格的으로 확대되고, 대학 진학에의 욕구

좌절과 재수생들의 累積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불만과 社會的 病理作用 등이 많이 解消될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

3. 單科大學의 構造와 機能上의 問題

우리나라 단과대학의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를 규명함에 있어 단과대학의 구조와 기능상의 長·短點을 종합대학교의 그것들과 상호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학의 본질적인 理念에서 중시되어야 할 秀越性의 追求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규모가 큰 종합대학보다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함에 있어 유리한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 전통적인 서구식 엘리트 指向의 大學教育이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만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것이 수월성 추구에 유리하다는 소규모 단과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 풍토에서는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학생 수가 5천 명 이상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종합대학과 규모가 훨씬 작은 불과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대학(small college)을 模型으로 해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구조상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前者를 量 위주의 大衆教育(mass education)이라 한다면, 後者は 정선된 학생들로 구성된 엘리트 교육이라 한다. 후자는 교육의 質에 역점을 두는 엘리트 指向大學 또는 秀越性을 追求하는 대학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에 대한 판단 경향은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막대한 예산과 풍족한 교육 시설을 지니고 있고 質的으로도 우수하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大學의 機能的 측면에서 살펴 볼 때, 학생 수가 財源으로 간주되는 우리나라의 대학 운영 풍토에서는 대규모의 종합대학이 소규모 단과대학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운영면에서도 많은 學科와 다양한 전문 분야의 教授들이 있는 까닭에 사회적 요구에 광범하게 副應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폭 넓

게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대집단교육(mass education) 속에 파묻혀 학생들의 개성 개발과 창의성 개발이 어렵게 되고 人間教育의 逆機能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많은 전공 분야로 細分됨으로써 教育的 努力이나 教育 投資가 분산·약화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종합대학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보다도 조직의 운영·관리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서 單科大學은 규모가 작으므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全人的 發達을 돕는 데 유리하고 소집단으로 집중적인 교육 활동을 展開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대학보다는 教育的 秀越性 追求를 위해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운영과 관리에서도 규모와 기구가 작으므로 단순·용이하여 신속성과 적응성을 발휘하는 데도 종합대학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들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학과가 적고 전공 영역이 제한되어 필연적으로 教授와 人的 資源이 不足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학생 수가 적으므로 재정이 불충분하여 교육 활동이나 교육 시설에의 투자가 어려운 것이 큰 약점 내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략적인 비교이기는 했지만 兩便의 장·단점을 살펴 볼 때, 結論的인 판단으로 규모가 큰 종합대학이 소규모의 단과대학보다 모든 면에서 반드시 우월하거나 한층 격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보다 엘리트 양성 指向 대학으로서 教育的 秀越性을 추구하고 學生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대학의 귀중한 교육적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같은 평가 경향은 우리나라보다 대학의 역사와 경험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歐美 선진국들의 실례와 연구 결과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大學教育 產出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은 학자들의 대학 학부 과정의 배경을 조사해 보았다. 이 조사 연구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대학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단과대학들이었다. 스위스모아, 리드, 오벌린, 해버포드, 칼튼대학의 順序였는데 이 대학들은 모두 1천 명에서 2천 명 내외의 소규모 문리과대학(Liberal Arts College)들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립 종합대학 체계이면서도 특히 학부 과정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카고대학, 하바드대학, 예일대학 등이었다. 특히 가장 큰 주립종합대학인 캘리포니아대학의 학부 성적이 전체 등급에서 50등 안에도 들지 못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가 대학원의 진학 성적, 대학원에서의 우수한 성적, 博士學位 취득자의 다수 배출 등의 성취단으로 학부 교육의 전반에 걸친 수월성의 기준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學問의 秀越性이란 측면에서만은 상당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조사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제시해 주는 것으로는 소규모의 문리과대학 유형의 단과대학이 대규모 종합대학 체제의 대중교육보다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는 유리한 대학 체제라는 것이다.

4. 單科大學의 改善課題

단과대학이 더 이상 綜合大學校로 轉換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단과대학 체제와 그 特性을 계속 살려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대학의 특성과 장점들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先決課題라 생각된다. 앞으로 단과대학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과대학은 綜合大學 體制를 지향하거나 모방하기보다도 학부 중심의 단과대학 체제를 계속 고수하면서 그 대학 特有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단과대학의 제1차적인 使命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각 단과대학은 종합대학에 결여되어 있는 어느 특정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그 단과대학의 類型과 機能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특히 그

단과대학의 유형과 성격을 분명히 내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文理科大學, 師範大學 또는 教育大學, 工科大學, 農科大學, 經商大學, 水產大學 등 특정한 전공 영역에 관한 綜合大學 체제 속에 분산되어 있는 單大들의 후종을 불허하는 秀越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深化·擴大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과대학은 전문 직업인의 양성에 앞서 人間을 길러내는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한 人間教育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특히 종합대학의 大衆教育 體制 속에서 埋沒되기 쉬운 학생들의 個性과 創意性을 개발·육성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야 하겠다.

네째, 단과대학의 特性과 秀越性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와 교육 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성숙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상급 學位課程인 碩士 및 博士 학위 과정까지도—그 대학의 역량 여하에 따라서는—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대학의 교육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는 예컨대 浦項工科大學의 경우처럼 단과대학 체제로서도 研究中心大學,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어느 특정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심화·확대하며 學問의 秀越性을 계속 추구해 가는 단과대학의 출현이 기대된다.

끝으로 종합대학 체제의 대학이라 할지라도 構造上的 결합이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래의 종합대학 속의 단과대학들을 劃一的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止揚하여야 하겠다. ‘새로운 模型의 單科大學’이라는 Dressel 이 指稱하는 것과 같은 종합대학의 체제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생활 교육을 바탕으로 한 全日制 單科大學을 설치하여 단과대학의 장점들을 살리게끔 독립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한 캠퍼스 속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체제가 共存하는 二重構造의 운영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맺는 말

앞에서 우리나라 單科大學이 지니고 있는 문

계점들을 고찰하면서 當面한 課題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單科大學의 특성과 수 많은 교육적 기능상의 장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들을 지원하며 육성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社會人이나 學生들뿐 아니라 대학교육계 인사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단과대학의 正常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 규모에 따라서 '大學(College)'과 '大學校(University)'로 구분하여 差別待遇하는 그릇된 풍조가 없어야 한다. 大學의 진정한 價値는 그 대학의 教育理念과 目的意識의 淸明性, 그 대학의 特性과 그것에 적합한 教育 프로그램의 內容과 그 質 여하에 따라 公正하게 評價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올바른 評價 眼目的 變化가 요망된다. 또한 단과대학 財政의 零細性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특히 사립 단과대학의 경우 각 대학 나름대로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민간 단체나 政府의 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단과대학들이 운영상 불가피하게 유혹을 받게 되는 종합대학으로 轉換하려는 對策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과대학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單科大學의 獨特한 教育的 機能 발휘와 社會에의 최대한의 寄與가 기대된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李相周, 大衆教育에서의 秀越性,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 5 호, 1983. 9, pp. 8~12.
- 李洙德, 대규모와 소규모의 대학교육, "서울여대학보", 서울여자대학출판부, 1978, pp. 13~17.
- 李洙德, 大學教育의 發展을 위한 當面課題,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 9 호, 1984, pp. 87~91.
- 鄭璐煥, 綜合大學化 指向만이 능사인가,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 18 호, 1985, pp. 65~70.
- C. Bird and E. Boyer, Is College Necessary?, *Change*, February, 1975, pp. 32~37.
- Paul L. Dressel, The Residential College in a University, *Improving College and University Teaching*, Summer, 1970, pp. 230~235.
- A.I. Gannon, Identity and Purpose: Musts for Independent College, *AAUW Journal*, 1973, pp. 15~21.